

경제 희생시까지 환경규제 유예되어야



사 명 환

〈 대한석유협회 기획조사팀과장 〉

환 정보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과 나라경제가 외환·금융위기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때에 막대한 신규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외화가 소요되는 환경규제의 강화는 병든 기업과 국가경제의 희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급환자는 위급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위기시에는 환경대책도 긴급 단기 위기대책이 있어야 한다. 경제위기하에서 기업은 생존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생존을 위해 초긴축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외환·금융위기가 물고온 IMF의 영향으로 정유업계는 원유수입난과 자금난, 내수의 급감, 가격경쟁의 심화등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경부는 재벌그룹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및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소나기식 개혁과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하에서 생존자체를 위한 재원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거의 모든 재원조달의 창구가 막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무역수지개선에도 역행하는 일부 환경규제의 강화는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97대기오염도 분석」에 따르면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연탄이 등유·경유 및 도시가스로 대체되고, 저유황유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6년 이후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도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IMF한파의 영향으로 석유소비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기오염도 당분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대도시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단위 : pp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5	0.017	0.023	0.031	0.023	0.010	0.017	0.028
'96	0.013	0.022	0.023	0.012	0.008	0.015	0.022
'97	0.011	0.018	0.016	0.013	0.009	0.011	0.019

자료 : '97 대기오염도분석(환경부, 1998. 3)

이처럼 대기질도 개선되고 있음으로 환경부는 생존의 위기에 있는 기업의 희생, 나아가 국가경제의 희생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황함량 0.5% 중유의 사용을 금년 7월 1일 이후 확대시행하려는 계획을 3년간 유보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 및 회수시설 설치 시한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4년말까지 유예하고, 휘발유의 품질기준 강화시기도 2000년에서 3년 유예한 2003년 1월부터 적용하여 업계의 과중한 투자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 경제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환경당국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